

# KIA 양현종, 23억원 '연봉 동결'

‘예비FA’ 안치홍 5억원·김선빈 3억원에 도장  
윤석민은 10억5000만원 깎여...역대 최다 삭감

KIA 타이거즈 좌완 에이스 양현종의 연봉이 동결됐다. KIA는 29일 2019시즌 연봉 재계약을 대상자 44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0명의 연봉이 인상됐고, 7명은 동결됐다. 17명은 연봉이 삭감됐다. 지난해 29경기에서 184%이닝을 소화하며 13승 11패 평균자책점 4.15의 성적을 거둔 양현종은 올해에도 지난 시즌과 같은 23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옵션은 별도다.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안치홍은 예비 FA 프리미엄을 특목히 누렸다. 지난 시즌 타율 0.342 23홈런 118타점으로 중심타자로서 제 몫을 해낸 안치홍은 지난해 연봉 3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인상률 56.3%) 오른 5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또 다른 예비 FA 김선빈은 올해 연봉 2억8000만원에서 2000만원(인상률 7.1%) 인상된 3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투수 임기준은 지난해 6000만원에서 66.7% 오른 1억원에 계약했고, 최원준도 지난해 7500만원에서 33.3% 증가한 1억원에 사인해 역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임기준과 최원준은 모두 프로 첫 역대 연봉이다. 김윤동은 1억5000만원에서 20% 오른 1억80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됐고, 한승혁은 6500만원에서 30.8% 인상된 8500만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연봉이 12억5000만원이었던 윤석민은 올해 10억5000만원 삭감된 2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10억5000만원은 지난해 1월 장원



삼이 삼성 라이온즈와 재계약하며 작성한 역대 최다 연봉 삭감액(5억5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삭감 폭이다. 장원삼은 2017년 연봉이 7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2억원으로 연봉이 깎인 바 있다.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가 2015년 3월 국내로 복귀한 윤석민은 KIA와 4년 총액 90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복귀 첫 해인 2015년 30세이브(2승 6패) 평균자책점 2.96으로 활약한 윤석민은 이후 3년간 어깨 통증 탓에 몸값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28경기에서 승리없이 8패 11세이브 평균자책점 6.75에 그쳤다.

## “도쿄올림픽 육상 7~8종목 결승, 오전에 치뤄질수도”

우승 유력美 시청자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 육상 트랙과 필드 7~8개 종목의 결승이 오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청자들을 위한 것이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닛킨스포츠는 3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일부 육상 종목 결승을 오전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시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림픽에서 경보, 마라톤 등 육상 도로 종목은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다. 도쿄올림픽에서도 마라톤과 경보는 더위 때문에 오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하계올림픽에서 오전에 예선, 저녁에 결승을 편성하는 육상 트랙과 필드 종목의 결승 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다. 닛킨스포츠는 “거액의 중계권료를 지불하는 미국 방송사가 미국의 끝난 타임에 육상 결승을

중계하고 싶다고 IOC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예전 올림픽에서도 통상적으로 오후에 치러던 경기를 미국 방송사의 입김 탓에 오전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부분 오후나 저녁에 치러지는 피겨스케이팅을 오전에 편성한 것도 미국 방송사의 요구가 주된 이유였다. 시차 때문에 미국 시청자들이 끝난 타임에 육상 경기 결승을 보려면 일본에서 오전에 경기가 열려야 한다. 닛킨스포츠는 “미국 선수의 우승이 유력한 세단뛰기, 포환던지기 등을 포함해 7~8개 종목 결승이 오전에 치러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의 흥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매체는 “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남자 100m와 400m 계주 등 인기 종목 결승은 예전처럼 오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뉴시스

## ‘바람의 손자’ 이정후, 류현진 넘어 3년차 최고연봉 2억3천만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프로 3년차 역대 최고 연봉 기록을 갈아치웠다. 키움 히어로즈는 29일 2019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3명과 연봉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정후는 지난해 연봉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인상률 109.1%) 오른 2억3000만원에 사인했다. 이는 프로 3년차 역대 최고 연봉이다. 2008년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류현진(현 LA 다저스)이 기록한 1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KBO리그를 휘저으며 신인왕을 차지한 이정후는 지난해 부상 속에서도 109경기에 출전해 타율 0.355 6홈런 57타점 11도루 81득점으로 활약했다. 프로 2년차 징크스도 없었다. 지난해 외야수 골든글러브도 품에 안았다. 간판 타자 박병호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연봉 15억원을 받는다. 팀 내 연봉 계약 대상자 가운데 최고 연봉이다. 2015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했던 박병호는 2017년 11월 국내로 유턴했다. 키움과 연봉 15억원에 계약했고, 지난 시즌 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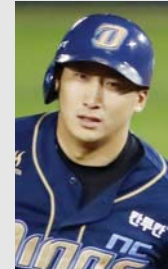


0.345 43홈런 112타점으로 중심 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홈런 부문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올 시즌 두각을 드러낸 내야수 김혜성은 지난 시즌 연봉 2900만원에서 4100만원(인상률 141.4%) 오른 7000만원에 계약했다. 팀 내 최고 인상률이다. 외야수 임병욱은 지난해 5000만원에서 100% 오른 1억원에 계약,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역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키움의 연봉 재계약 대상자 43명 중 역대 연봉자는 총 11명(투수 5명·야수 6명)이다.

## 나성범 “메이저 혈값에 갈 생각 없다”

“양의지 등 전력보강한 NC, 올 시즌 기대된다”

NC 다이노스의 간판타자 나성범(30)이 팀의 반응을 꿰꿨다. NC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애리조나 부순으로 출발했다. 9명의 코칭스태프와 47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1월30일부터 3월8일까지 38일간의 일정이다. 나성범은 올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즌에 임한다. 처음으로 주장을 맡았고, 지난해 최악이었던 타선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있다. 공수를 겸비한 양의지의 가세로 타선이 강해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성범은 “양의지 선수는 두산하고 경기할 때 풀치 이폰 포수였지만 이제 우리 팀에는 반대가 됐다.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 좋다. 타격에서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 고등학교 선배라 잘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상 없이 풀타임을 치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올해 전력보강으로 인해 팀 성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나성범은 “2년차까지는 (목표



를) 숫자로 말했는데, 그렇게 하니 잘 안되더라. 올해는 다치지 말고 하자”는 생각이다. 다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다”며 “전력보강도 됐고, 어린 선수들도 좋다고 들었다. 캠프를 잘 보내면 올 시즌 다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일단 도전을 하고 싶다. 무조건 가야한다는 생각은 없다. 터무니없는 조건에 갈 마음은 없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경우에만 구단, 가족들과 상의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이 선임돼, 나성범과의 재회 가능성도 생겼다. 그는 “감독님께 전화 드렸다. 솔직히 나에게도 고마운 분이자 스승이다. 시즌이 끝나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는 생각도 해봤다.

## ‘은퇴 시사’ 머레이, 임블던 출전 가능할까

고관절 수술...올해 7월1일 개막

올해 안에 은퇴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앤디 머레이(32·영국·세계랭킹 225위)가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머레이는 3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28일 영국 런던에서 고관절 부위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통증이 심하지만 회복하고 난 후 통증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렸다. 2012년 US오픈과 2013, 2016년 임블던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머레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며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시달려 2017년 임블던 이후 1년 가까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에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수술대에 올랐다. 한 때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던 머레이는 225위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6월 말 부상을 털고 복귀한 머레이는 6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8강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하며



부진했다. 지난해 US오픈에서도 2회전 탈락했다. 머레이는 올해 호주오픈을 앞두고 올해 안에 은퇴할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쏟아냈다. 머레이는 올해 호주오픈 1회전에서 5세트 접전 끝에 패배했다. 머레이는 은퇴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해 임블던까지 뛰고 싶고, 임블던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고관절 부위에 칼을 대면서 머레이의 희망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임블던은 7월 1일 개막한다.

뉴시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참새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